

회원인터뷰 요청건

보낸 사람 희망과 대안 [REDACTED]
 받은 날짜 2010/01/06 14:45
 받은 사람 박영숙 [REDACTED]

건강하신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희망과대안에서는 회원분들과의 소통과 결속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분들을 하나하나 만나나가는 1인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13명의 소중한 회원분들의 여러 경험과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입니다.

인터뷰내용은 기사화해 블로그와 뉴스레터를 통해 전체 회원분들과 공유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오마이나 프레시안과도 연계를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내용은 너무 무겁지 않게 회원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신 삶의 과정과 희망과대안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연관해 현 상황에서 희망과대안이 해야 할 일이나 바라고 싶은 점 등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방식은 우선 원로분들과 소장인사들을 번갈아가면서 1주에 1인씩 진행해나갈 생각이며,
 그 첫번째로 오는 12일의 원로초청 5당 간담회가 열리는 시점을 감안하여
 선생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가능한 이번 주에 진행되었으면 하고요, 시간은 선생님 편하신 시간에 제가 맞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과대안 사무처
 이인문 올림
 [REDACTED]



[문화라운지]유지철 시카고 - 인순이,최정원,육주현,남경주 등 초호화 캐스팅!

AD 영화 100자평 쓰면 5000원 할인!

☞ **범버 실종경보** Help us find missing people!

caim **악어문**

한때일과 함께하는
**실종가족 찾기
 캠페인**



이름 **경정오 (현재 67세)**
 실종일자 2009년 11월 22일
 실종장소 광주 남구 월산동
 특 징 치매,아쉬고 수업이 많은 단임



인쇄하기

박영숙

자동으로 인쇄가 되지 않으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인쇄하기

<희망릴레이 1> 박영숙을 만나다

보낸 사람 희망과 대안

받은 날짜 2010/01/26 13:00

받은 사람

[희망과대안]에서는 회원분들과의 소통과 결속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분들을 하나하나 만나가는 1인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1분씩 매주 만나나갈 예정이며, 그 인터뷰 결과는 <희망릴레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회원 여러분들과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바라며, 아울러 [희망과대안]에서는 회원 여러분의 투고글들도 모집하고 있어오니, 형식에 구애없이 전체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것이 있을 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희망과대안』의 ‘마르다의 집’을 꿈꾸며 <희망릴레이①> 박영숙을 만나다

1932년 평양 출생. 만주 이주. 1945년 길림 동영소학교 졸업. 해방 후 귀향. 1947년 월남. 광주 전남 여고 졸업. 이화대 영문과 졸업. 1967년 YWCA연합회 총무. 서른일곱에 마흔일곱의 안병무와 결혼. 1970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1981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1985년 아시아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1985년 KBS-TV시청료거부 범국민운동본부 여성연합회 회장. 1986년 한국여성단체연합 부회장 겸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대책위원회 위원장. 최루탄추방위원회 공동대표.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1988년 평민당 총재권한대행. 13대 국회의원.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1992년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1993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객원연구원(국제환경정책연구). 1995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1998년 사랑의친구들총재. 1999년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2002년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위원장. 2006년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 공동의장. 2009년(재)살림이 이사장



박영숙, 그는 왜 '간절'한가?

박영숙, 그는 지난 12일 '2010 희망을 위한 시민사회 원로-야5당 대표 간담회'를 앞두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여의도까지 오전 7시30분에 맞추어 가려면 그가 사는 일산에서는 두 시간이나 걸려 새벽 4시30분에는 일어나야만 한다. '이렇게 중요한 모임에 혹시라도 늦으면 어떡하나?'하는 걱정에 그는 시계를 두 개나 맞추어 놓고도 쉽사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개인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은 그는 이날도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야만 했는데, 문득 그 모임의 중요성 때문에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간절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가 뜻하지 않게 12일의 모임을 앞두고 방장을 설친 것은, 그는 12일의 모임 전까지 '너무' 답답했다. 이미 지난해 10월 「희망과대안」이 오랜 준비 끝에 발족을 했고, 또 보수단체 소속 '할아버지'들이 이에 '위협'을 느끼고 한꺼번에 물러나와 '훼방'을 놓았지만, 그가 보기에 정치권이든, 아니 어떤 면에서는 시민사회단체까지 그의 바람과는 달리 이 엄중한 시기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평안도 사투리가 약간 맴돌고 있는 단정한 어투로 그는 조근조근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이날의 모임에 대해 "야5당과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한 만큼 만에 하나 잘 되지 않을 경우, 그 뒤를 따르게 될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견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미 우리는 경험했지 않은가? 지난 1987년 찬란했던 그 6월의 항성을 뒤로 한 채, DJ와 YS의 분열로 인한 12월 대선의 패배와 그 뒤를 '태풍'처럼 휩쓸었던 국민들의 허망함과 불신의 그 '스산함'을.

"유리그릇처럼 다루어야 해요." 그는 지난 12일 모임의 구성원들의 지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야5당

의 연합정치 시도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한다고 했다. 서로의 지향이 다른데 자칫하면 오히려 갈등과 교착 상태만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성취해 내야만 하는 큰 뜻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야5당에 주문했다. 연합정치가 말로 그동안 ‘분열’과 ‘반목’을 거듭해왔던 야5당이 정치적 대타협, 말하자면 정치적 대협약을 만들어 내는 것인 만큼, 그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아 일을 그르친다면 국민들에게 절대로 ‘감동’을 얻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머리’가 아닌 ‘몸’

“지금까지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아늑이 봐요.” 그는 지난 12월 모임이 끝난 후 집에 돌아가 축복한 감기몸살을 앓았다고 한다. 내년이면 80세가 되는 그는 아직도 새벽장을 설치면서 아니면 밤늦게까지 모임에 쫓아 다녀야만 하는 축복하고도 절망적인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의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몸이 고달파서 물러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 오늘도 그는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있는 것이다.

박영숙의 아버지는 일본 자동차회사에서 대체에너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갓 구워낸 빵에 버터를 발라 녹인 후 빨간 딸기잼을 발라 손수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기독교신자가 아니었음에도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낸 아버지는 근대화된 신사였다. 재봉틀이 나오자마자 누구보다도 먼저 사들고 와서는 손수 재단하고, 박음질을 해 아내와 아이들의 옷을 만들어 입히던 사람. 그의 집에서는 당시 관습과는 달리 밥을 풀 때도 아들 먼저가 아니라 태어난 나이순이었다고 한다. 그가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를 일찍 체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집안분위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그의 집안분위기는 당시의 한국사회와는 많이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나이 아홉이었던 194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복한 가정생활은 끝이 나고 만다. 31살에 홀몸이 된 어머니는 6남매(박영숙은 둘째였다)를 키우기 위해 만주를 넘나들며 보따리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제안으로 만주로 이주하게 된다. 당시 할아버지는 꽤 큰 자산가로 양조장을 하면서 만주 유일의 누룩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만주에서 그의 어머니는 안살림을 총 관장했다. 공장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식사수발까지 하는 것이었으니, 그 규모는 안살림이라 하기에는 너무 광장했다. 겨울을 나기 위한 저장음식 중 하나인 쟁고기만 하더라도 트럭으로 몇 대를 들여와 일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털 뽑고 뼈를 다져서 김장하듯 여러 개의 독에 저장하는 수준이었으니,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손님 시중을 눈코 뜰 새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 어머니 때문이었을까? 해방 후 귀향을 해 평양 정의여중을 다니던 열다섯 박영숙은 살림을 하느라 다른 상은 꿈도 꾸지 못하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친구들에게 선언하고 만다. 그러나 해방 후 평양에서는 홀로 된 어머니의 힘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너무 막막했다. 결국 어머니는 1947년 당시 남에서 16사단장으로 있던 박영숙의 작은아버지를 찾아 광주로 월남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작은 아버지 덕택에 어머니는 광주에서 재교점을 열었다. 그리고 박영숙도 전남여중에 편입을 했다.

1951년 그는 이화대 영문과에 입학한다. 그러나 당시엔 이미 6.25전쟁의 와중이라 마음 놓고 공부에만 열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난지 부산의 학교에서 그는 학과수업 시간 이외에는 전쟁고아와 피난민들을 돕는 자원 활동에 온 몸을 다 바쳐 전념했다. 휴전 후 서울로 돌아와서도 그는 이 활동을 그만 둘 수가 없었다. 대학YWCA 회원이 되어, 학교를 반년 쉬기까지 하면서 지역공동체활동에 나섰다. 그리고 졸업하면서 학교에 남아달라는 요청까지 들었지만 YWCA에서 만난 박예스터의 요청으로 1955년부터 YWCA 실무자로 활동하게 된다.

정신적 멘토 안병무, 그리고 마르다의 집

박영숙이 민주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몸을 담게 된 것은 1976년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3.1민주구국선언’ 사건이후부터이다. 함석헌, 안병무, 문익환, 이우정, 윤보선, 김대중 등이 연루된 이 사건으로 그의 남편 안병무를 비롯한 11인이 구속되면서 박영숙은 윤보선 전 대통령의 부인 공덕귀와 김대중의 부인 이희호 등과 함께 ‘3.1사건 구속자가족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시위활동에 나서게 된다.

그가 평생의 멘토인 안병무와 결혼한 것은 1967년 12월 29일이었다. 당시 독신주의를 표방하고 있던 민중신학자 안병무는 독일유학에서 돌아와 강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장시간의 암수술을 마치고 난 어머니 선천맥의 평생 단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당시 이희호의 뒤를 이어 YWCA 총무로 활동하고 있던 그에게 청혼을 한다. 이미 그는 1950년대 초 부산에서 안병무를 <야성>이란 잡지에 실린 글을 통해 알고 있었고, 당시에는 YWCA 활동을 통해 강연자로 참여한 안병무를 직접 접하고 있던 상태였다.

안병무는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었다. 교수벽이 철지했던 그가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일러주었는지 박영숙이 지금도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해야 하는 경우 망설이지 않

는 것은 안병무의 말이 떠오르기 때문이란단다. 박영숙은 소신을 생활화하는 삶을 충실하게 산 안병무를 존경한다.

결혼 후 그와 안병무가 살았던 수유리 집은 1976년 3.1민주국선언사건이래 1990년대 초반에 우연동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재야인사들에게 완전 개방되어 있었다. 그 당시 도청 때문에 암호를 사용했는데 그의 집을 '마르다의 집'이라고 불렀다. 마르다는 기독교 성서속의 인물로, 영성에 탁월했던 그의 동생 마리아와는 달리 돌봄과 헌신에 탁월했던 여성의 이름이다.

재야인사들의 아지트였던 '마르다의 집'에서는 구속자 가족모임 뿐만 아니라 해직교수 모임, 외국방문자점대모임도 하고 고은시인 결혼식까지 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 갔으며 신년모임, 4.19모임, 구속자석방촉하모임 등으로 그의 마르다의 집에서 밥을 먹은 사람들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박영숙, 그가 아는 이명박

박영숙은 이명박 대통령을 일을 통해 직접 접해본 경험이 있다. 1995년부터 97년까지 조순시장 시절에 이어 그는 2002년부터 04년까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시장과 더불어 공동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적이 있다. 그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걱정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본 이명박대통령은 무조건 물어부치는 식의 행정과 철면피한 편 가르기를 마다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무모한 추진력을 거침없이 발휘하는 상식에서 벗어난 예측불가능한 사람이었다. 시장시절 당시의 서울시회의의 의석비율이 거의 100% 가깝게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었던 행운이 뒷받침되기도 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발상만하고 나면 곧바로 추진해 버리곤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토건적 발상이었다는 데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의 발상에 토를 다는 공무원이나 인사들은 다른 견해나 의견을 제시하는 즉시 그와 함께 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적극적인 토론과 숙의는 시간만 낭비하는 일로 효율성만 떨어뜨리는 '성가신' 일인 것이다. 그 만큼 그의 사전에는 '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당선되어 자행하고 있는 완벽한 편가르기의 행태가 우리사회의 분열을 부추기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보라.

박영숙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쓴웃음을 짓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직후 대통령 내외가 200여명의 여성계 대표들을 청와대 오찬에 초청했을 때의 일이다. 지정된 세 명의 발언자중의 한분이 앞으로 이런 행사에는 진보진영의 여성계 대표들도 초청되기를 바란다고 하자 그의 옆에 있던 여성부장관에게 초청한 것을 확인하고 하는 말이 '그분들 양상적이지요, 저를 찍지 않았는데 어떻게 옵니까?'라는 것이었다. 그의 편가르기 벽은 이만큼 두꺼웠다. 그는 반쪽만의 대통령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대통령에게 제동을 가할 수 있는 힘은 투표권 행사를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다고 믿는 박영숙이 지난 12일의 모임에서 비롯된 야5당의 연합정치에 기대와 희망을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영숙을 만나다

인터뷰 후 그는 사무실로 책 한 권을 보내왔다. 묻는 말에 따라 그의 삶의 과정을 이야기한 그는 자주 기억의 퍼즐들을 놓쳐버리곤 했다. '미안하다'고 속스러워하면서 그가 곧바로 보내준 책, <또하나의 문화>에서 펴낸 그의 Herstory 「박영숙을 만나다」를 읽었다. 평생을 '마르다'처럼 살아온 그의 삶의 곁들을 읽어나가면서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1980년대 광주의 아픔을 겪으면서 '이념과잉의 시대'를 살아야만 했던 386세대로서 '말씀'보다는 몸소 '실천'하는 것을 삶의 전범으로 삼아왔던 그의 한 평생의 모습에 절로 고개가 수그러졌던 것이다.

잔뜩 어질러져 있는 방안을 보며 386세대는 우선 한숨부터 내쉬고, 그리고는 '이걸 어떻게 치워야 할까?' 머리로 '고민'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우선 치우고 본다. 자신의 삶 앞에 널려 있는 여러 일들을 우선 몸으로 치우고 본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는 또 세상을 온 몸으로 밀고 나간다. 이 급박한 순간에 어디 생각할 '거름'이라도 있는냐는 듯이, 그런 그가 존경스럽다. 이제 나도 '머리'로 고민은 그만하고, 것처럼 치열하게 '현장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아니, 밀고가고 싶다.

그가 1987년 평민당의 부총재로 정치판에 몸을 담아 13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도 그것은 그의 삶 앞에 '그냥' 놓여진 것이었다.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부회장으로 있던 그에게 정치권으로부터 정

당참여의 제의가 왔다. 주변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길을 '그냥' 두박두박 걸어갔다. 그리고 온 신명을 다 바쳐 '정치활동'을 수행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또 시민사회 출신 인사로서 자신을 떠나보낸 그곳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다 1993년 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떨어졌을 때, 그는 미련 없이 정치판을 떠났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 라고 그는 생각했다 한다. 그리고 그는 남편 안병무의 적극적인 격려 속에 환갑이 넘은 나이로 영국 케임브리지로 1년 반 동안의 유학을 떠난다. 그곳에서 국제환경정책을 연구하고 돌아온 그는 다시 그의 '시민사회'로 돌아왔다. 그리고 또다시 온 몸으로 그의 삶을, 아니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지난 14일 그는 「희망과대안」의 원로종진모임에 직접 만든 쿠키를 한 상자 싸왔다. 그리고 강조했다.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전인미답의 길인 '정치적 대타협'을 성취해 내기 위해 절대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더 각 집단이 자기의 입장과 이익 그리고 기득권을 일정부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국민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것을 담보해 내는 교두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적극적 정당정치 개입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 다른 처지와 이익관계로 큰 물 빠기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시민사회는 중재자로서, 그리고 해결사로서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도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2010 지방선거에서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빈다. 아니, 함께할 것이다. 2010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울 6월2일 지방선거 후 「희망과대안」은 박영숙, 그의 일산 집에서 '마르다의 집'을 다시 함께 열 것이다. 2010년의 '희망'을 꿈꾸며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Herstory 「박영숙을 만나다」의 일독을 권한다.



[이벤트] 절친 만들기 대작전. 선물 받아주세요!

AD  영화 열혈회원께 혜택을 드립니다

 **잃어버린 실종정보** Help us find missing people!

대한민국

한백일과 함께하는
**실종가족 찾기
캠페인**



이름 **장태형 (현재 55세)**
실종일자 2009년 8월 18일
실종장소 대구 북구
특징 오랜만 눈썹 부분에 시마귀



연세하기

박영숙

자율으로 안쓰게 되지 않으면 대가를 불러주세요. • [인생화기](#)

<희망릴레이2>사회혁신기업가 원낙연, 그가 꿈꾸는 세상

보낸 사람 희망과 대안

받은 날짜 2010/02/02 15:34

받은 사람

참조: [이메일](#) <hopeplanning@hanmail.net>

다음글은 희망과대안 블로그(blog.daum.net/hopeplannin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의’만으로는 세상 못 바뀌

<희망릴레이2> 사회혁신기업가 원낙연, 그가 꿈꾸는 세상



모든 삶이 ‘여행’이길

사회혁신기업가 원낙연, 그는 늘 다른 세상을 꿈꾼다. 어려서부터 ‘日新又日新’이란 말을 좋아했듯이, 그는 늘 멈추지 않고 하루하루 끊임없이 달라지는 세상을 꿈꾸어 왔다. 지금의 나와 우리, 또 사회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하나씩하나씩 어떤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세상.

그래서 그는 여행을 떠나는 것을 좋아한다.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늘 움직이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그는 그렇게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늘 떠돌아다녔다.

그래서였을까? 13년이나 몸담았던 회사, 중앙일보에 사표를 내고, 듣기에도 생소한 사회혁신기업가로 일하겠다고 나섰을 때, 주변의 반대가 엄청나기도 했지만, 부모님과 아내의 반응에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하는 것도 있었다 한다. 그의 ‘방랑’ 기질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미 딱지 못 할 ‘예상했던 일’이었던 모양이다.

"95년 12월부터 중앙일보 기자생활을 시작했어요. 산자부와 기업들을 담당했는데....."

그러나 중앙일보에서의 기자생활은 그의 삶에 대한 갈등을 해결해주지는 못했던 것 같다. 항상 긴장을 붙여 놓아주고, 자신을 끊임없이 타자화시키면서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던져주는 여행을 너무 좋아해 "모든 삶이 여행이길 바란다"는 그에게 꼭 딱! 직장생활은 처음부터 '몸에 맞는 옷'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기자생활 당시부터 다른 이슈에 관심이 많았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늘 사회문제에 대해 해결해 보고픈 욕구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 누군가 그에게 제안을 해왔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자금이 확보되면서 그는 미련 없이 중앙일보 기자생활을 떠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4-5년, 수익이 나올 그때를 준비하면서 그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약 1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기업적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하기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을 예로 들어볼까요?"

방글라데시 치타공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무하마드 유누스가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를 시작한 것은, 1976년 당시 방글라데시에서 저소득층에게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회문제'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그라민 은행은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사회문제에 접근했다. 바로 기업적 방식으로 사회문제에 접근, 이를 해결해낸 것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운동과 그라민은행

방글라데시 치타공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무하마드 유누스가 1973년 20여 달의 해외에 그라민은행의 형태로 시달리던 빈민들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준 것이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 : 무담보 소액대출)의 시발점이다. 유누스는 1976년부터 자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빈민들에게 담보 없이 소액신용대출을 하는, 이른바 '그라민은행 프로젝트(Grameen Bank Project)'를 실행하였다. 방글라데시어인 그라민은 '시골' 또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 프로젝트가 시행된 3년 동안 500여 가구가 그라민은행에서 벗어나 수 있었다. 이 성공에 고무된 유누스는 1983년 그라민은행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국민자들에게 150달러 안팎의 소액을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빌려주는 일을 계속하였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운동은 큰 성공을 거두어 그라민은행은 2006년 현재 2,185개의 지점과 1만 8,000여 명의 직원이 종사하는 거대 은행으로 발전하였다. 대출금의 100% 예금으로 충당하고, 회수율은 99%에 육박한다. 1993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대출받은 600만 명의 빈민들 가운데 58%가 빈곤에서 벗어났다.

"일부 문제에서는 기업적 방식이 더 효율적이며 또 더 규모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는 자신했다. 하지만 '사회혁신기업'이란 말은 아직 너무 어렵다. 요즘 유행하는 '사회적 기업'이란 말과는 무엇이 다른가?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사회적 기업'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다. 그러다보니 법규정에 해당하는 일만 지원하기 마련이고, 또 '사회복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다보니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업이 구상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이 실제로는 더 다양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회혁신기업'이란 개념은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다. '사회적 기업'보다는 좀 더 사회문제의 혁신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단순히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회복지' 개념에서도 벗어나, '사회적 기업'처럼 기업적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 음, 그래도 어렵다. 그는 요즘 각광받고 있는 '공정무역'을 예로 들었다.

"사회혁신기업이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했다고 보면 되지요."

하긴 사회혁신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가 뭐 특출난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놈의 세상이, 그리고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이념이 '나'만의 이익과 욕망을 더더욱 추구하면서 기업이나 개인들의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을 아예 '쓰레기'로 여기게끔 만든 것일 테니까. 그러나, 그래서 사회혁신기업을 통해 그가 '혁신'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는 '특출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작고, 별 일 아닌 듯 보인다고 해도.

사회혁신기업을 키우는 전문인큐베이터

그가 1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일은 이러한 사회혁신기업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전문 인큐베이팅서비스이다. 사회혁신기업들이 겪게 될 초기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투자와 함께 전문 인큐베이팅 서비스까지 제공(재무계획 수립, 외부자원 네트워킹 지원 등)하면서 그 사회혁신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더 높여내는 것!

현재 그는 '공정노동과 친환경'을 표방하고 있는 한 의류업체의 인큐베이팅 작업을 하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라 그 업체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하청과 재하청 속에서 임금구조 등이 왜곡되어 있는, 의류산업의 구조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업체로, 의류소비자들에게는 친환경의 좋은 소재를 채택해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활용, 소비자와 직접 연결을 하면서 그들의 욕구에 잘 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래서 남는 수익을 공제노동자와 디자이너 등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여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류산업구조의 변화를 꾀하는 것!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사회혁신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함께 재무적(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혁신기업들의 존재 이유이다. 사회혁신기업의 활동을 통해 기존의 문제적 사회구조를 일부라도 바꿔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이 이 사회에 '악'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은 일이지 않은가? 그러나 '기업'이라면 스스로 지속가능해야만 한다. 기업이라면 기부나 정국 프로젝트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성장해서 이익을 내어야 하고, 그 이익을 재투자해서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혁신기업가로 그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다.

90학번, 공대생

"학생운동을 하면서도 전통적인 운동방식에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종교나 이념에 거부감이 많았다고 한다. 이념이란 언제나 완성을 꿈꾸고, 또 완성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변화를 멈추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는 학생운동 당시에도 나름 혁신을 꿈꾸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연세대 90학번으로 당시의 전통적인 운동권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부문운동으로서의 과학기술자운동을 제기하고 운동의 일상화를 지향하면서 졸업이후에도 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와 씨름했다.

학생들과 신문사를 만들어 데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신문으로 만들어 배포하면서 그는 편집장으로 1년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은 뜻하지 않게 그가 중앙일보사에 기자로 취직되는 발판이 되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에게 기자직은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자 또 하나의 경험일 뿐이었다.

실제로 기자생활은 취재영역에서 자신의 문만 다한다면 그에게 나름의 자유를 주기도 했다. 그 시간을 이용해 그는 자신의 관심을 키워나간다. 신촌에 있던 서점, <오늘의 책>이 문단을 위기에 빠졌을 때는 조합 결성에 동참하기도 했고, 인터넷 대체가 보편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지적재산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보공유연대라는 시민단체에 직접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물론 회사에서는 그의 이런 활동을 알지 못했다. 이런 경험이, 그리고 사회혁신기업가로 본격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도 결합해 (시민사회에 사회혁신기업들) 홍보도 하고 또 연대회의의 자체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희망과대안』에도 가입을 하게 된다.

운동권의 혁신, 소통구조의 혁신을 위하여

그는 바쁘다. 그러나 그보다는 직접 기업에 몸을 담고 있는 상태라 '눈치가 보여' 『희망과대안』의 행사에는 잘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과대안』에 대한 그의 애정은 놀랄 만치 매우 크다.

"『희망과대안』이 애초 100여 명으로 회원을 제한했던 것은 회원 전원이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조직 지향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건은 현실 속에서 각 회원들이 직접 역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일 텐데,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는 『희망과대안』에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정국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어쩔 수 없겠지만, 이후 좀 더 여유가 생긴다면 애초 결성의 취지대로 내부 소통구조의 혁신에도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메일을 통해 전체 회원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은 긍정적이기는 한데, 그러나 아직도 『희망과대안』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논쟁 중심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원로들이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소셜미디어들을 더욱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이들때면 트위터의 가벼운 같은 것! 메일을 통해 소통하려면 모두가 정해진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그만큼 『희망과대안』의 활동은 아직도 시민사회의 원로들과 범조제 인사, 그리고 학자들 중심의 논의구조와 활동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웹2.0시대의 담론은 공유와 개방이에요."

그는 이러한 웹2.0시대의 담론이 한국 시민사회의 가치와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도입하고 적용하는 데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에게 모든 정보를) 개방한다는 것의 핵심은 조직을 운영하는 철학적 가치일 텐데, 이를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현재 그의 진단이다.

기업에서 배우자

"기업의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아직 한국의 시민사회의 활동방식은 개발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기업들은 이미 그것이 사회혁신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티즌(소비자)들의 속성과 요구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취향과 욕구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 기업체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시민사회는 자신들의 담론을 생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네티즌(국민)들과 과연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라도 일반 기업체보다도 더 국민(네티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희망과대안』이 조직된 방식에 주목하고 있었다. 113명의 회원들로 한정되어 있는 모임. 시민사회의 오랜 원로들로부터 자신같은 사람들까지. 『희망과대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다방면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들을 함께 모아낼 수 있는 방법만 찾아낼 수 있다면, 『희망과대안』은 생각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회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틀을 『희망과대안』이 갖추었을 때 국민들과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희망과대안』, 그리고 야5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개혁세력이 정부여당이나 보수언론에 밀려 있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테다. 113명의 회원들과도 소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3채 국민들과의 소통이 가능한단 말인가?

원낙연, 그는 매우 미안해했다. 모임에는 거의 참석도 못하면서 '할 말은 다 한 셈'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희망과대안』에 기대를 품고 있다. 지금은 시급한 정치상황 때문에 많은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테지만, 인젠가는 '공유와 개방'이라는 웹2.0시대의 담론을 시민사회단체의 조직구조의 모습으로, 그리고 회원들, 나아가서는 전체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구조의 새로운 실현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을……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금융소외계층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대의'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도 혁신적인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희망과대안』이 한 정부여당의 일방독주식 즉 정운영에 반대한다면, 단순히 그러한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되겠지요. 현 정부여당과는 다른 방식, 다른 소통의 방식을 직접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렇게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해가면서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희망과대안』의 조직구조와 활동방식부터 웹2.0시대의 쌍방향 소통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지요."

연세하기

박영숙

자투리로 인생가 덮지 않으면 여가를 누리주세요 • 연세하기

<희망릴레이3> 배옥병, 대중들과 함께 웃고 울다

보낸 사람 희망과 대인

받은 날짜 2010/02/16 02:08

받은 사람

'연합정치'를 실현시키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힘 <희망릴레이3> 배옥병, 대중들과 함께 웃고 울다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이하 급식네트워크)의 상임대표 배옥병은 참으로 듄직한 사람이다. 1957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 후 농사를 짓다 1975년 당시 구로공단에 있던 가발공장 (주)서릉에 취직되어 일명 '공순이'로 수도 서울에 입성한 이래 그는 여태껏 그 구로에서 '꾸준하게' 살아오고 있다.



1980년 5월17일 (주)서릉에서 처음으로 노조를 결성해 노조위원장으로 '운동권'에 첫발을 들여 놓은 이래, 대학생 출신으로 그의 삶의 동반자가 된 '위장취업자' 남편을 만나 결혼한 곳도 바로 그곳 구로였으며, 해직 후 1984년부터 노동자복지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남부교육시민연대, 남부교복공동구매추진협의회, 구로구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운동본부 등의 지역운동을 시작한 곳 역시 그곳 구로였다. 또한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학부모회를 거쳐 지금의 급식네트워크까지 꾸준히 학부모운동을 전개해온 것도, 그 기반은 바로 그의

공식적인 삶의 출발지이자,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어도 결코 떠날 수 없었던 수도 서울의 '구로공단'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삶의 첫 출발지였던 서울 '구로공단'을 지금까지, 1981년 노조활동으로 1년6개월 실형을 살았던 그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 참으로 회한(회망과대안)하다.

젊은 처자들과 아줌마들

"재미있었어요."

그는 지금 학교급식운동을 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설명했다. 그가 노조위원장으로 '꿈'에도 그리던 노조를 설립한 것은 1980년 5월17일이었다.(당시 그가 다니던 회사에는 위장취업자들이 없었지만, 그는 이미 1978년부터 새문안교회 대학청년부에서 구로지역에서 시작한 '노동야학'에 몸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12시 떨어진 수군부의 계엄령으로 광주에서는 이에 저항하는 시민항쟁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빛고을' 광주가 신군부의 군부 발 아래 무참히 진압된 후에는 극심한 '폭압'이 휘몰아쳐 왔다. 8월 이후에는 노조의 존립을 위해 노조위원장 자리까지 내놓고 일반조합원으로 활동을 해야 했다. 그러나 신군부의 폭압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12월8일 새벽4시 6명의 노조간부들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로 끌려가 28일 동안의 모진 고문이 포함된 조사와 1주일 동안의 순화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1981년 다시 노조활동을 재개했다. 1,200명이나 되었던 공장직원들은 1,2,3차에 걸친 해고를 거치면서 600명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그는 그해 6월1일 경찰에 연행되어 1년6개월의 실형선고와 함께 회고를 당하면서 더 이상 (주)서통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후 그가 선택한 삶은 1984년부터 결혼과 함께 시작된 노동자복지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으로 이어지는 (구로)지역운동이었다. 그러던 그가 운명의 '학부모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그의 큰 아이가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1994년의 일이었다.

"(여전히) 구로에서 여성복지회관을 통해 지역대중 활동(한글과 컴퓨터 강좌)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학부모회를 나가보니 (그동안 볼 수 없던) 지역의 대중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활동할 곳은) 바로 여기구나, 했지요."

고기가 물을 만난 듯 그는 학부모 활동을 한달음에 시작했다.(그렇게 시작한 '학교'활동에는 지역의 현안들이 켜들어 있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출마하고 또 운영위원장까지 맡아 일을 하면서 그는 마치 20대 초반 서울에 처음 올라와 (주)서통에서 노조활동을 막 시작했던 즐거웠던 '젊은 처녀' 시절로 되돌아간 듯 '행복했다'고 말한다.(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이 두 가지를 꼽고 있다)

도대체 뭐가 그리 행복했을까? '젊은 처녀'들과 '아줌마'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인 '여인네들의 수다',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그를 아주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은!

그것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안다. 은근슬쩍, 쓸데없는 듯한 말들을 지껄이면서도, 또 그렇게 짓고 까붙며 함께 박장대소하면서도, 어느새 '이 인간들이 얼마나 나에게 공감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하나로 어울려 얼마만큼이나 함께 행동할 수 있는지'를 요모조모로 가늠해볼 수 있는 수단이 되어주기도 하는, 시끌벅적한 여인네들의 '수다'는 ○ 찌면 신라시대의 화백제도처럼 밀로부터의 완전 '만장일치'의 공감대를 형성케 해, 어느 순간 그네들의 막강한 힘을 하나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마법의 요술지팡이일지도 모른다. 그러기까지 그네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데없이' 짓고 까부는가? 민주주의란 그만큼 함께 공들인 시간의 '퇴적물'인 것이다.

대중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타고난 대중 활동가인 그는 대중들을 아주 신뢰하고 있다. 그것은 그가 대중들과의 활동 경험에서 몸소 배운 것이기도 하다.



“대중들은 스스로 결정해요. 또 문제의식을 느끼면 과감하게 뿔쳐나서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지요. 동가의 역할이란 그저 (그들에게)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일하던 1998년 방학 중에 초등학교 앞으로 아주 위험한 도로가 하나 생기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부랴부랴 조사를 해보니 이미 통장이 25명의 서명을 받아 보상금까지 다 지급받고 도로공사가 70%이상 진행된 상태였다. 그는 당연히 학부모총회로 이 문제를 가져갔다. “어떻게 할까요?” 그의 물음에 “구청장을 만나러 갑시다”란 대답이 흘러나왔다. “그럼 언제 갈까요?”하는 물음에는 “이렇게 모이기도 힘든데 지금 당장 갑시다”란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 즉시로 ‘우르르’ 구청으로 몰려가 3시간 만에 구청장을 만나 안전한통학로 대책을 세울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날 모였던 약 300여명의 학부모들 중 1/3이 구청장 면담에 참가했어요.”

그는 이러한 대중적 힘을 조직으로 모아내 ‘구로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학부모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후 6년 동안 서울시와 구로구를 수차례 항의방문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 지역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하나 되어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직접 실현시켰을 때 큰 보람과 함께 자부심을 느꼈다고 한다.

학교급식운동도 그렇게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파동으로 인한 촛불집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대단했다. 2002년 급식네트워크가 발족하게 된 것도 바로 이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우리 사회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감! 이를 바로잡고자 출범한 급식네트워크가 이룬 시일 안에 많은 성과를 낸 것은 당연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바로 그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니, 그가 대표로 있는 급식네트워크가 실패할 위험성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다. 현재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무상급식운동’은 그만큼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아주 오랫동안 ‘대중’들 속에서 착실하게 준비되어온, 그래서 이제는 정부여당인 한나라당 안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주장이 나올 정도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학교급식운동이 일상의 문제를 이슈화해내어 대중적 방식으로 풀어나간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으로서 한국 사회운동의 새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교급식운동은 2002년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하루 약 745만 여

명이 한 끼 이상을 먹고 있는 학교급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왔다. 학교급식은 안전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학교장이 직접운영하며, 의무교육 기간인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와 고등학교 역시 의무교육을 제도화하고 인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가는 국가공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뜨거운 열망들을 담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창립 되었다.

학교급식운동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다. 학교급식이라는 평범한 의제를 국민적 운동으로 만들고 식품안전, 환경, 교육, 농업, 수입농산물과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 학교급식법 개정,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를 만들어냈다.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운동을 통하여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100%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234개의 기초 시·군·구 중 192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들 조례에서는 국내산 우리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101개 시·군·구에서 주민조례 발의를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수백만 명의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주민자치에 의한 권력 견제와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생활상의 요구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한 지역자치운동이며,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생활정치로서 기존의 중앙 중심적으로 펼쳐졌던 시민운동과는 달리 지역에서의 자치운동을 통해 그 영향력이 지방정부를 거쳐 중앙정부에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참여민주주의 운동을 펼쳐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운동의 큰 특징은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시민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와 농민회, 노동조합, 정당 등까지 참여하고 있어 연대의 범위가 전에 없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농업을 살리자」는 학교급식운동의 대의명분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학교급식운동이 섬세한 관찰과 새로운 접근을 통하여 느리지만 지역민의 현실과 생활에 근거한 구체적인 운동으로서, 거대담론에 가려져 일상생활에서의 약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없었던 일들을 지역자치운동을 통해 힘 있게 추진해 온 것”이라고 힘 있게 말했다.

「희망과대안」이 해야 할 일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려면 연합정치가 이루어져야죠. 이를 실현하려면 결국은 정책연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텐데, 그 과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는 현재 5+4모임(야5당과 「희망과대안」을 중심으로 한 시민 4단위의 모임)이나 활동가 등 상층의 고민도 중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밑으로부터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 힘이 있어야만 5+4모임 내부의 다름과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상층에서 연합정치를 끌어가고자 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라고 크게 염려했다. 정책도 너무 거시적으로, 위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밑에서부터 잡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발족한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이하 교육희망넷)의 활동방식을 사례로 들었다. 교육희망넷은 지난달 11일부터 16일까지 10대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미리 선정된 17대 과제 중 1인당 5가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온라인투표(학생, 학부모, 시민 대상)에는 총 1,312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그 과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마감을 하루 앞두고 어떻게 알아내었는지 학생들의 집단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그때까지만 해도 후순위에 자리 잡고 있던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총 891표를 얻어 ‘뜻밖의’ 1위를 차지한 것이다. 2위는 721표를 얻은 ‘보충수업, 자율학습 폐지’, 그리고 3위는 696표를 얻은 ‘모든 일제고사 폐지’였는데, 모두가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직결된 의제들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10대 과제를 순위대로 살펴보면 ▲교육비제로, 무상교육실현(532) ▲수능시험폐지, 대입제도개혁(447) ▲학급당 학생수 25명 실현(441) ▲초중고교 무상급식실현(431) ▲학생회와 동아리활성화(234) ▲대학평준화, 국공립대네트워크(234) ▲21세기 학교로의 시설혁명(202) 등이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학생회와 동아리활성화’가 ‘대학평준화, 국공립대네트워크’와 똑같은 표를 얻었다는 점이다. 어른의 손으로만 10대 과제를 선정했다면 과연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대거 참가해 얻어낸 위의 결과표들을 보면 이미 학창시절을 떠나버린 어른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현재의’ 학생들의 ‘직접적인’ 고통이 가슴으로 다가온다. 아니, 밀려온다. 이러한 학생들의 직접적인 ‘아픔과 고통’을 모른 채 하면서 과연 ‘교육개혁’을 말할 수 있는 자, 그 누구인가?

대중과의 접촉, 시민사회의 또다른 과제

대중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가끔씩 놀라운 경험을 보여주곤 한다. 2008년 촛불이 바로 그랬다. 그때 나타난 촛불은 이미 새로운 대중이었다. 시민사회단체가 전혀 주도권을 발휘할 수 없었던 그 촛불정국 속에서 만난 새로운 대중들과는 이제 어떻게 소통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어떻게 만나갈 수 있단 말인가?

“「희망과대안」의 회원 113명은 모두 각 영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 모임을 통해서 이들의 생각을 다 모아내기에는 역부족이죠. 오랜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할 텐데, 이를테면 각 분야별 정책을 만들어낼 때 분야별 모임을 추진한다든지 등등... 어쨌든 회원을 하나하나가 책임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부여해야 할 거예요."

그도 고민하고 있었다. 113명의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소통하여 하나로 뭉어낼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혁신기업가 원낙연의 지적대로 '소통'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인 문제였던 것일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꼭 한 번 풀어야만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희망과대안』도 일산 '마르다의 집'에 함께 모여 앉아 짚은 '수다'를 크게 한 번 쏟아내야 하는 것은 아닐지, 고민이 더 많아진다. 누군가의 지적처럼 세상은 넓고, 또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은 것만 같다.

☞

[이벤트] 절친 만들기 대작전, 선물 받아주세요!

영화 열혈회원께 혜택을 드립니다

☞ 잃어 실종정보 Help us find missing people!

gahns 마이온

한여름과 함께하는
실종가족 찾기
캠페인



이름 김범영 (현재 8세)
실종일자 2005년 2월 27일
실종장소 부산 금정구 서동
특징 왼쪽 상귀물이 잔잔

